

기쿠치 성터

기쿠치성(鞠智城)은 7 세기 후반에 야마토 조정이 당나라와 신라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 구축한 방위선의 일부로서, 언덕 위에 축조한 큰 요새였다.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졌던 이 요새는 만약의 경우에 물자와 인원을 조달하기 위한 보급 기지, 훈련 시설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남규슈에 거주하며 8 세기 초엽까지 야마토 조정의 지배에 저항했던, 하야토라고 불린 사람들에게 대한 경비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663 년, 나당연합군과의 전투로 오랫동안 야마토 조정의 동맹국이었던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이 단독으로 당나라와 신라에 대항하게 되었다. 따라서 야마토 조정은 대륙에서 탁월 공격을 두려워했다. 일본해를 건너온 백제의 사관과 기술자들은, 적이 당시 수도였던 아스카(현재의 나라현)로 향하는 경로가 될 규슈와 세토 내해 연안에 한국식 산성을 건설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기쿠치성은 백제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흙과 돌을 쌓아올려 구축한 성 가운데 하나다. 비옥한 기쿠치 평야가 바라다보이며 거기에서 대량의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여 언덕 위의 창고에 비축할 수 있었다. 이들 창고와 망대, 수비대가 설치된 약 55 헥타르의 중앙 구역에는 좁은 골짜기에 만들어진 세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엄중한 요새가 축조되어 있었다. 총면적 120 헥타르에 달하는 이 유적에서는 72 동의 건물 기초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당나라와 신라의 침공은 없었고, 기쿠치성은 점차 평시의 저장 시설로 전환되어 10 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다. 현재는 공원으로 정비되어 쌀 창고, 병영, 팔각형 고루 등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다. 전망대에서는 성 안을 바라다볼 수 있으며, ‘온코소세이칸’에서는 성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다.